

SEOUL ECONOMIC BULLETIN

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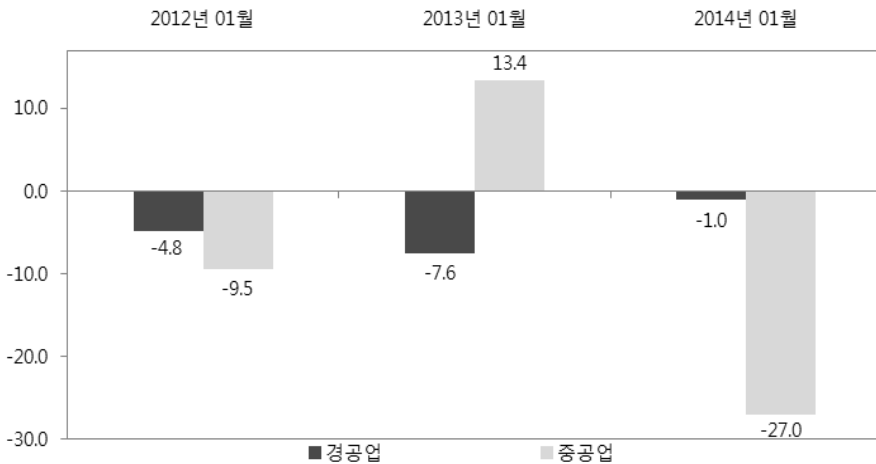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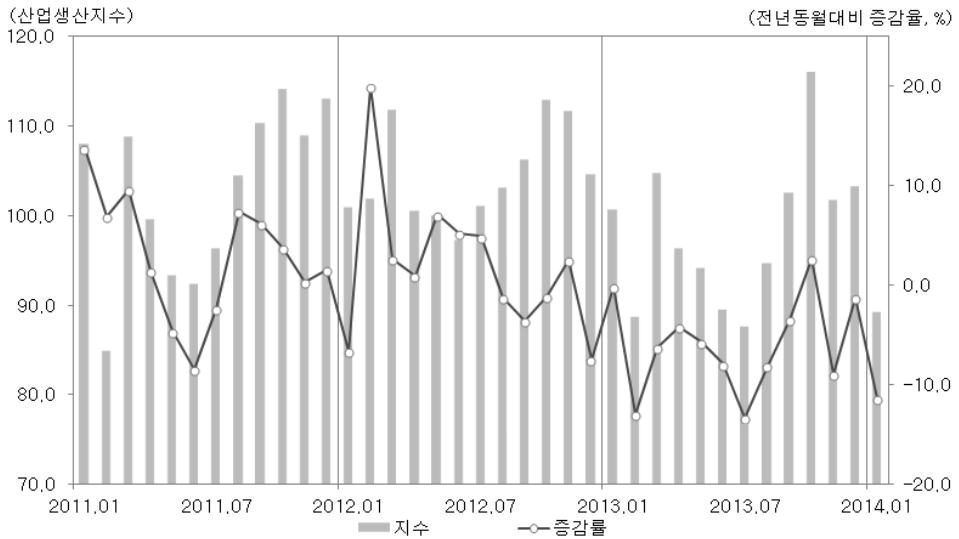
- 요약
- 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-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- 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- 물가 소비자물가/신선식품
곽지원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)
- 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- 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- 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이소은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)

| 요약 | 1월 서울의 경제동향

생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의 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.2로 전년동월대비 11.4% 하락 • 1월 제조업 출하·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8.9% 감소, 14.0% 증가하여 경기하강기
소 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,935억원으로 전국(6조8,240억원)의 32.1%를 차지 • 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.2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8.9% 증가
고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0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6천명(1.0%)이 증가 • 서울의 1월 고용률은 60.0%로 전년동월대비 1.0%p 증가, 실업률은 3.8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감소
물 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4년 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8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 대비 0.6% 상승
부 동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강북지역(0.04%) 특히 강남구(0.14%)와 영등포구(0.11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02% 상승 •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(0.76%) 특히 서초구(1.54%)와 마포구(1.07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64% 상승
금 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의 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2조 9,354억 원으로 전월대비 1.0% 증가, 그 중 가계대출은 177조 9,131억 원으로 전월대비 0.4% 증가 • 서울의 1월 신설법인수는 2,238개로 건설·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4.5% 증가 • 서울의 1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1.7% 감소
수 출 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의 1월 수출은 48.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.4% 감소,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• 서울의 1월 수입은 110.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.1% 증가, 품목별로는 석유제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| 생 · 산 |

- 서울의 2014년 1월 제조업생산지수 89.2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11.4% 감소
 - 공업구조별로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 각각 전년동월대비 27.0%, 1.0% 감소
 -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고무·플라스틱(25.4%), 기타제품(8.3%), 섬유제품(5.8%)등 증가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-39.8%), 기계장비(-23.5%), 전기·가스·증기업(-12.7%) 등 각각 감소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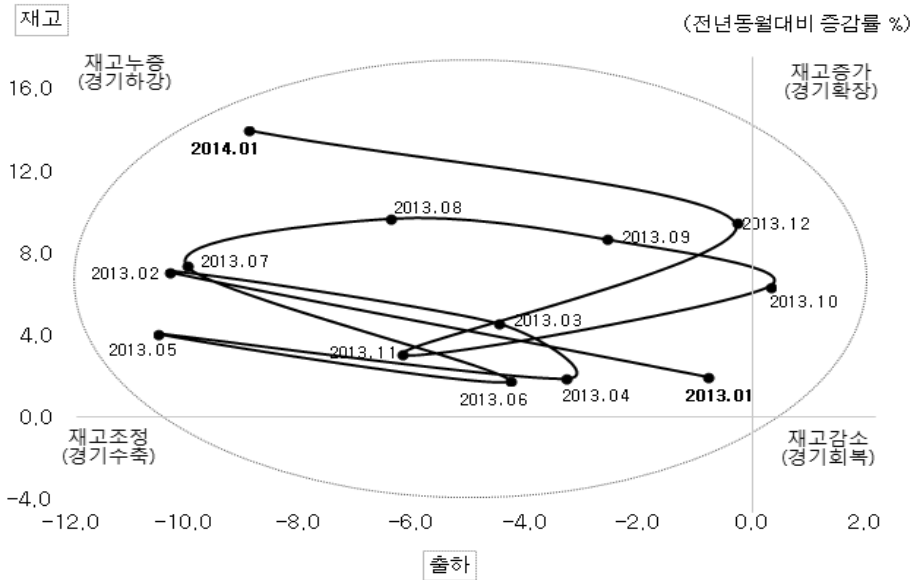
<그림>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- 서울의 1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,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
 - 서울의 1월 출하지수는 92.0(2010=100.0)으로 전년동월대비 8.9% 감소
 - 서울의 1월 재고지수는 121.9(2010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4.0% 증가
 - 출하 감소, 재고 상승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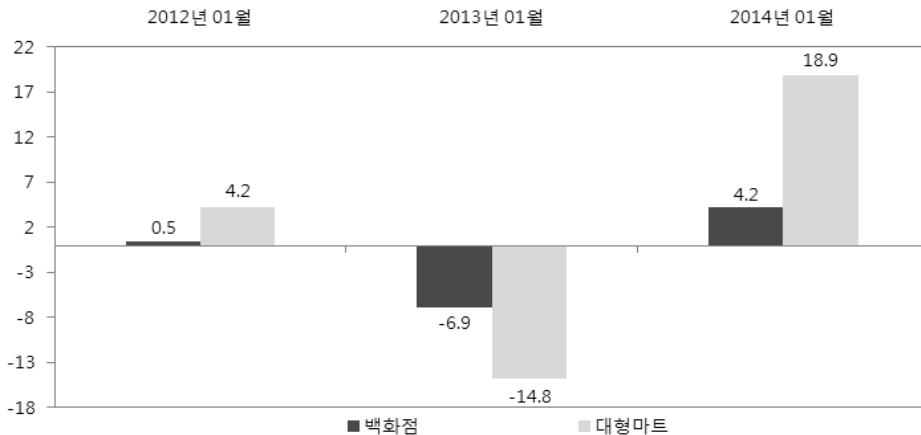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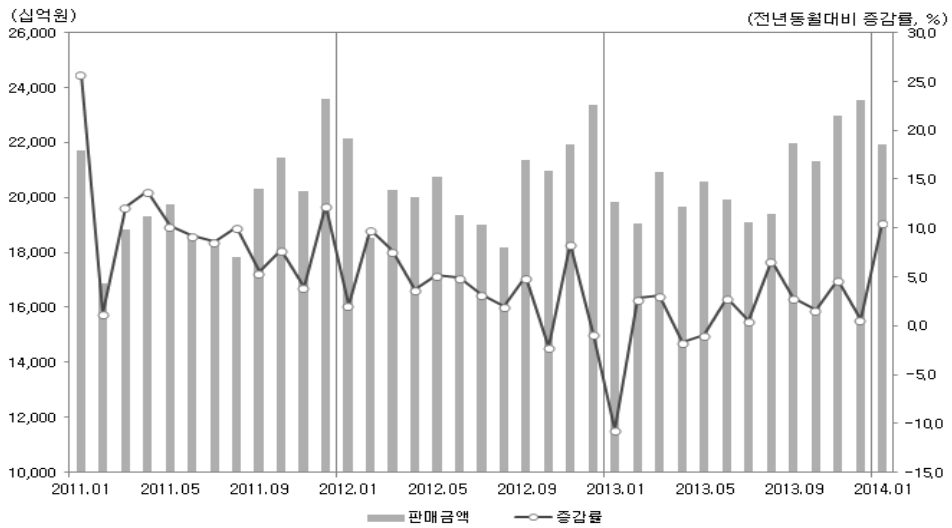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■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0.6% 증가

-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1,935억원으로 전국(6조8,240억원)의 32.1%를 차지
- 백화점 판매액은 1조1,582억원으로 전국(2조5,932억원)의 44.7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353억원으로 전국(4조2,308억원)의 24.5%를 차지
- 서울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0.0으로 전년동월대비 8.6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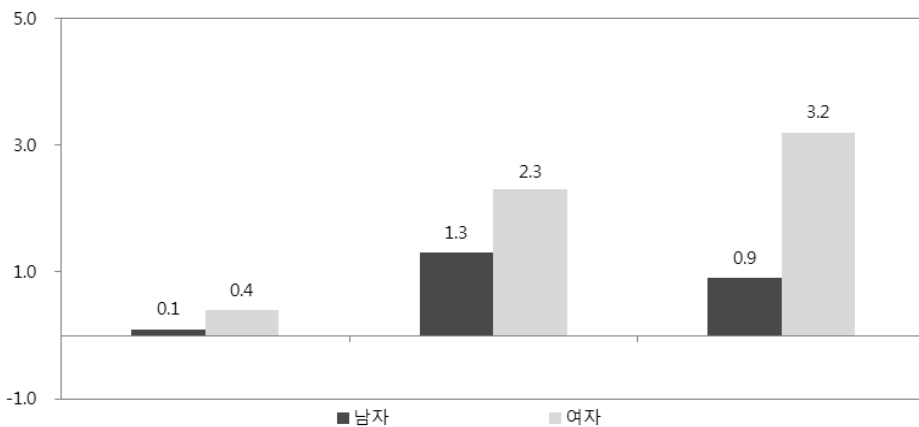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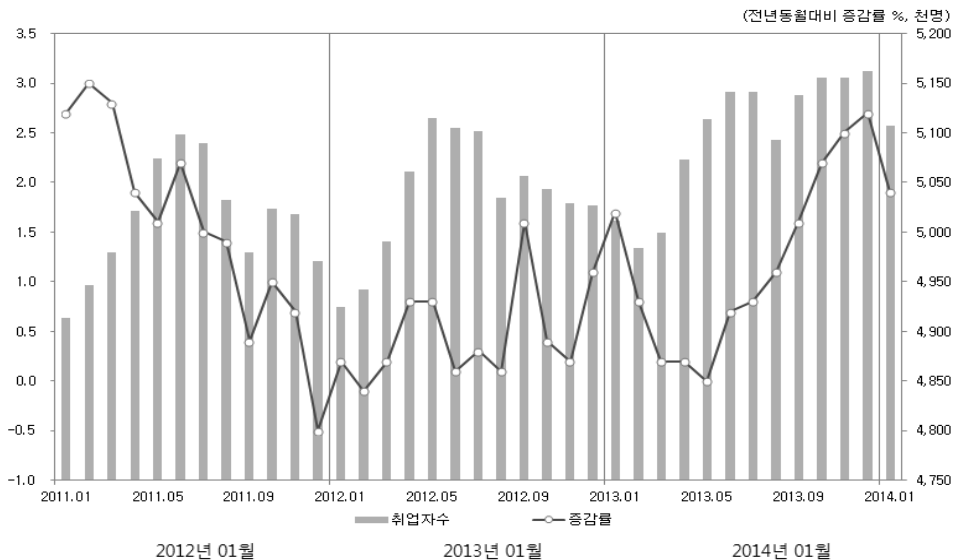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| 취·업·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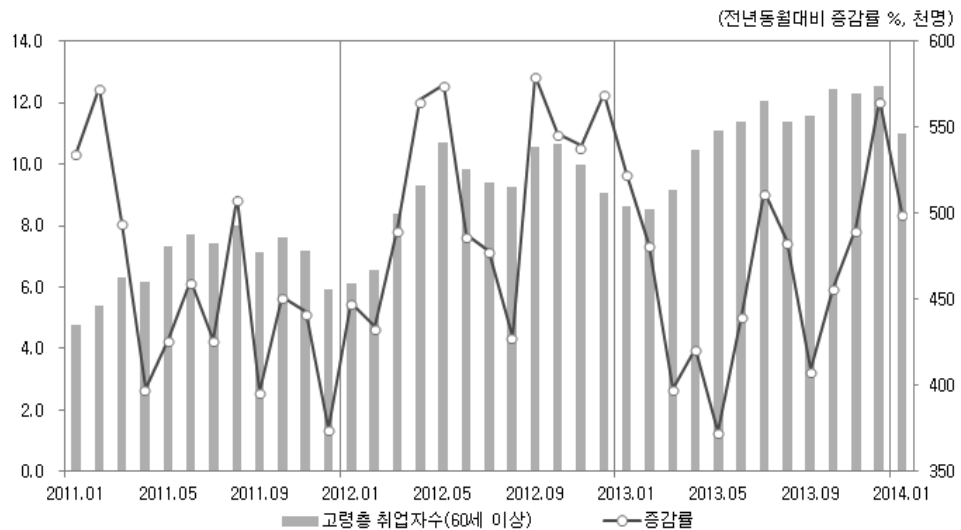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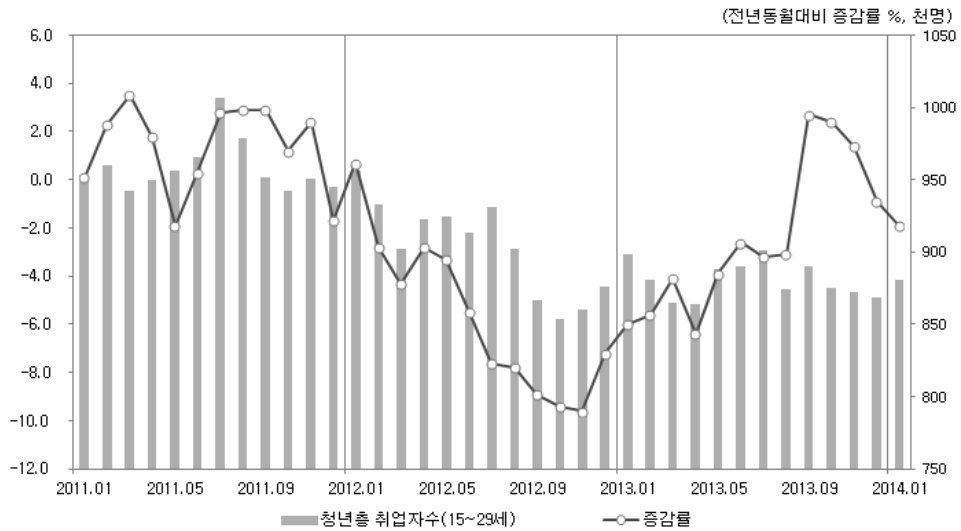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.9% 증가
 - 서울의 1월 취업자는 510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6천명(1.0%)이 증가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5만3천명, 여자는 225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만6천명(0.9%), 여자는 7만1천명(3.2%) 각각 증가
 - 산업별로 보면, 제조업이 3만2천명(6.7%),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이 7만4천명(5.6%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이 4만명(2.0%), 각각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- 서울의 1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, 고령층(60세 이상)은 플러스 증가세
 - 서울의 1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8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.9% 감소하여 2개월 연속 증감률 하락세
 - 서울의 1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54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.4%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
 - 3개월 연속 상승세이던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1월 들어 다소 주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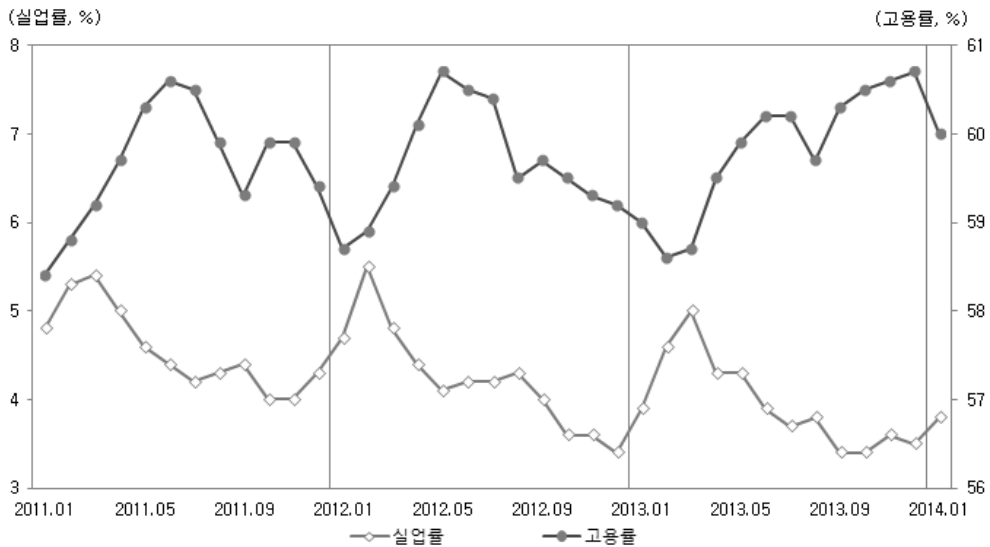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- 서울의 1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, 전국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1월 고용률은 60.0%로 전년동월대비 1.0%p 증가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9%로 전년동월대비 0.8%p, 여자는 50.9%로 1.4%p 각각 증가
 - 2014년 1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58.5%)보다 1.5%p 높은 수준

- 서울의 1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, 전국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1월 실업자는 2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(-0.6%)이 감소
 - 실업률은 3.8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감소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2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감소, 여자는 3.4%로 동일
 - 2014년 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5%)에 비하여 0.3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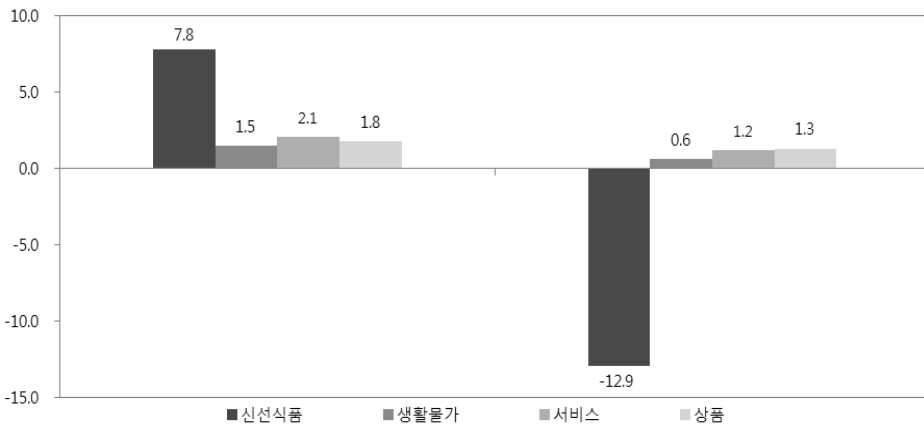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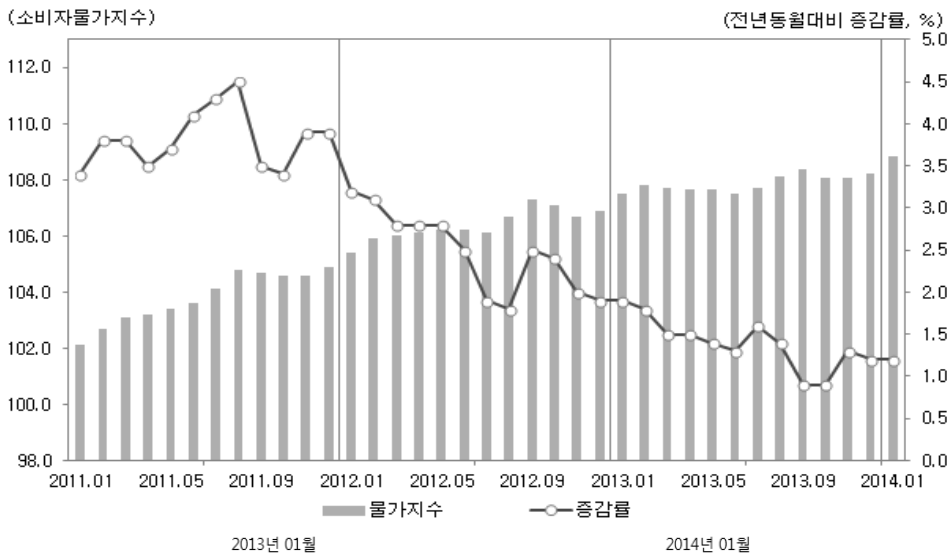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 · 가 |

■ 서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

- 2013년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.8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0.6% 상승
-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(-1.5%), 교통(-0.2%), 교육(-0.1%), 통신(-0.1%)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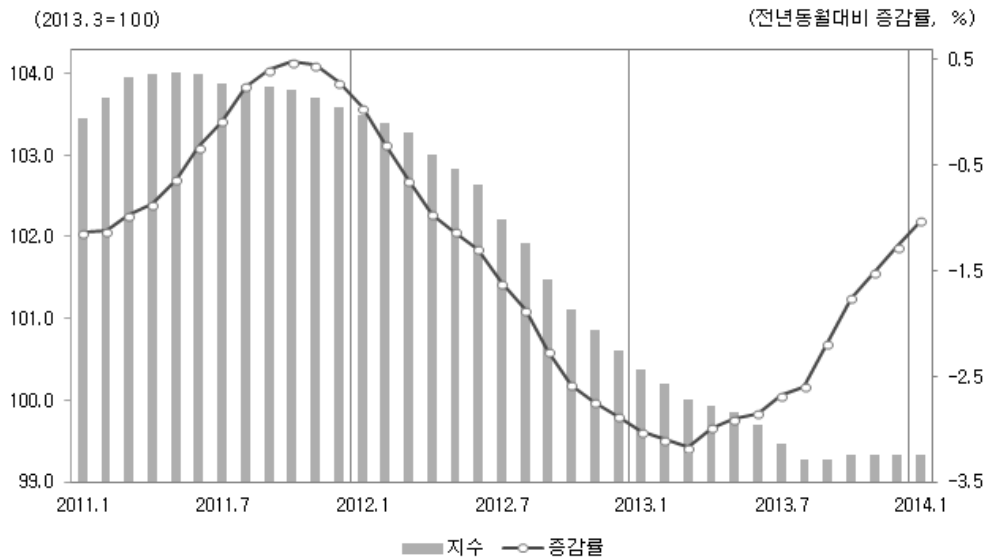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- 서울의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.02% 상승
 - 강북지역(0.04%) 전월대비 상승, 강남지역(-0.01%) 전월대비 하락
 - 상락률 상위지역: 강남구(0.14%), 영등포구(0.11%), 은평구(0.11%), 성북구(0.07%)
 - 단독주택(0.04%), 아파트(0.03%), 연립주택(-0.04%)

- 전국의 1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.11% 상승
 - 광역시(0.20%), 기타지방(0.20%), 수도권(0.04%) 모두 전월대비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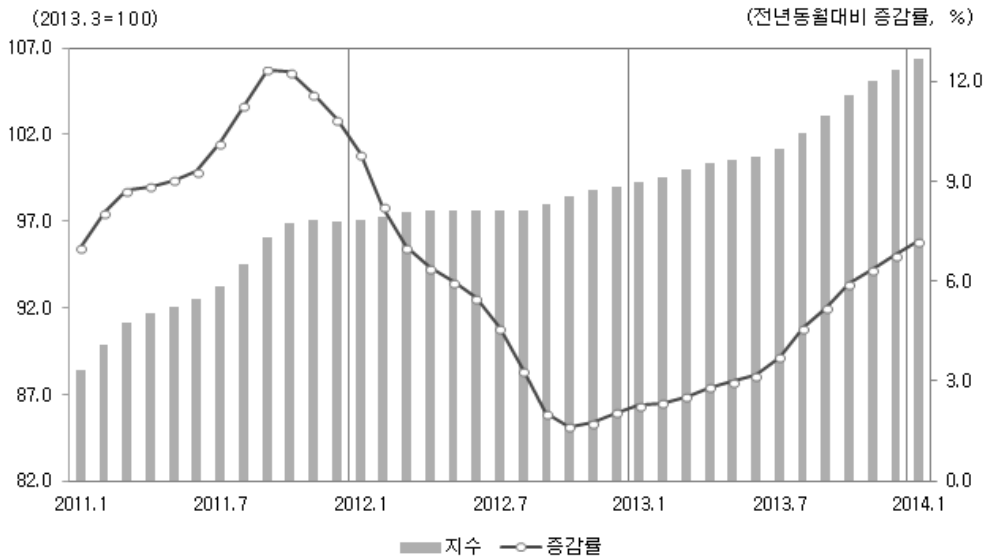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,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
 - 평당 매매가격(1,623만원)은 전월(1,622만원)대비 0.20% 증가
 - 매매거래건수(4,868건)는 전월(6,540건) 대비 25.6% 감소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- 서울의 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.64% 상승
 - 강남지역(0.76%), 강북지역(0.51%)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
 - 상승률 상위지역: 서초구(1.54%), 마포구(1.07%), 동작구(1.05%), 성북구(0.87%)
 - 아파트(0.80%), 연립주택(0.50), 단독주택(0.24%) 등 상승세 지속

- 전국의 1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.41% 상승
 - 수도권(0.53%), 광역시(0.23%), 기타지방(0.31%) 모두 전월대비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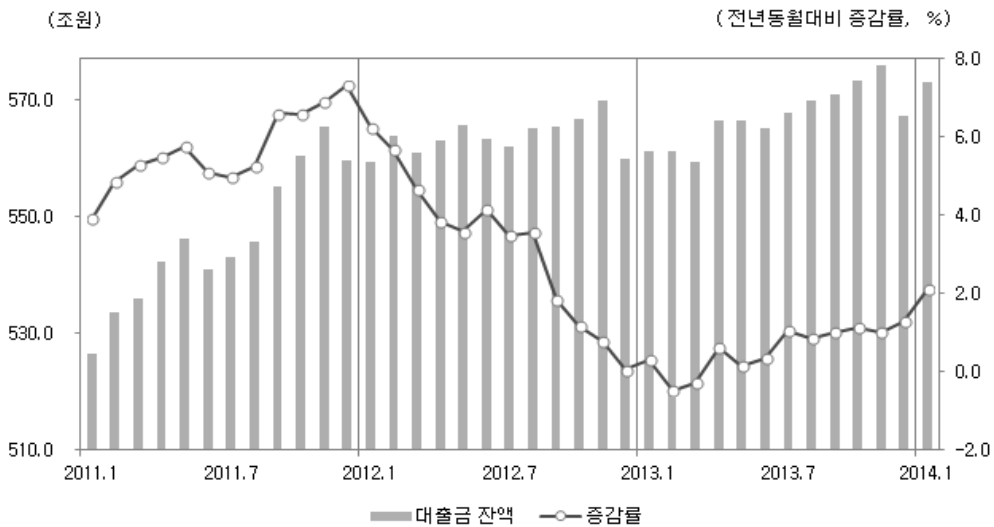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서울의 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,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
 - 평당 전세가격(평균 980만원)은 전월(971만원)대비 1.0% 증가
 - 전세거래건수(6,480건)는 전월(7,907건) 대비 18.0% 감소
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- 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 - 전체 대출금 잔액(572조 9,354억원)은 전월(567조 4,622억원)대비 1.0% 증가
 - 그 중 예금은행(467조 9,248억원)과 비예금은행(105조 106억원)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.4% 증가, 3.4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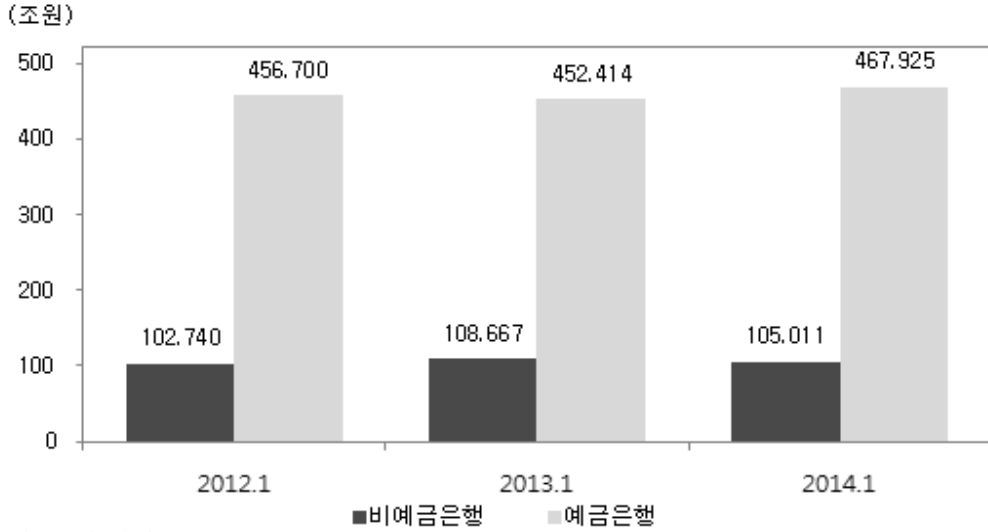
- 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 - 전체 대출금 잔액(1,523조 8,673억원)은 전월(1,514조 9,932억원)대비 0.59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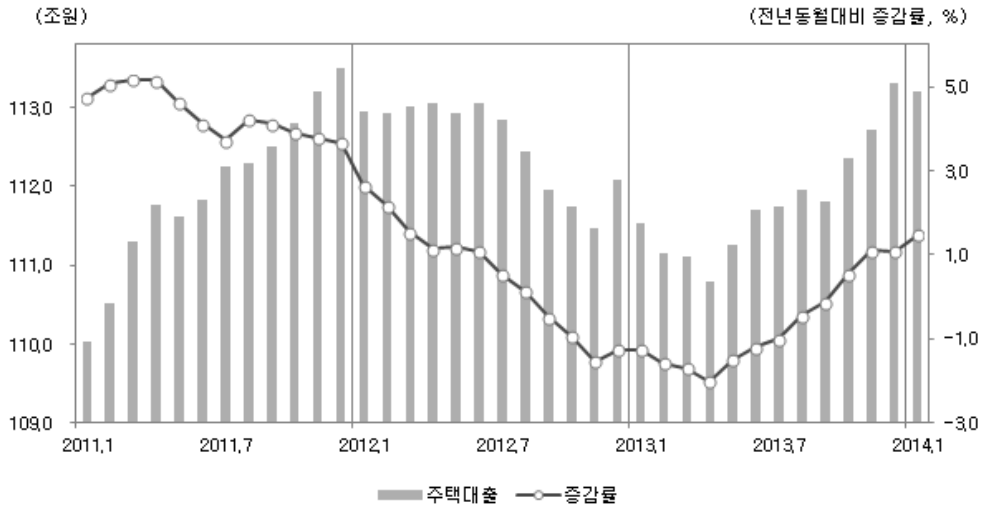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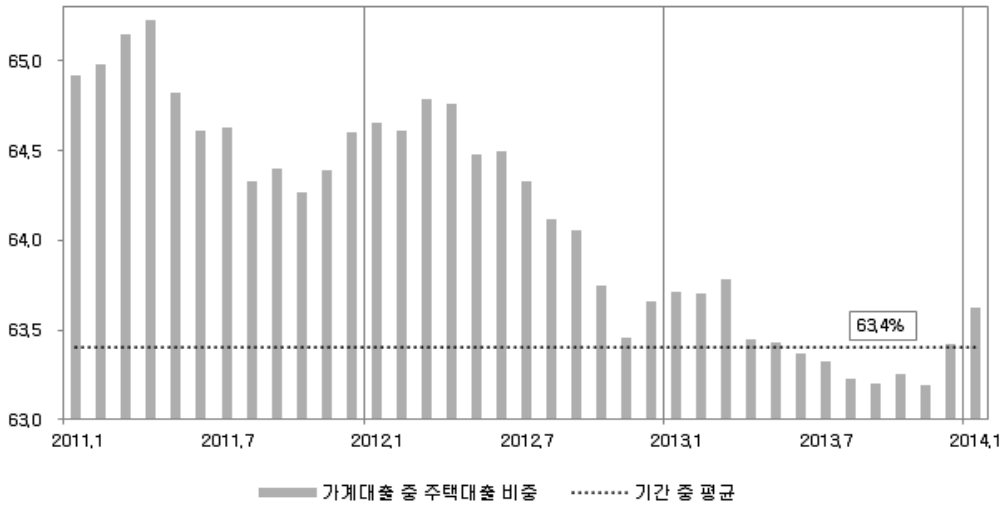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177조 9,131억원)은 전월(178조 6,809억원)대비 0.4% 감소
- 그 중 주택대출(113조 1,986억원)은 전년동월대비 1.5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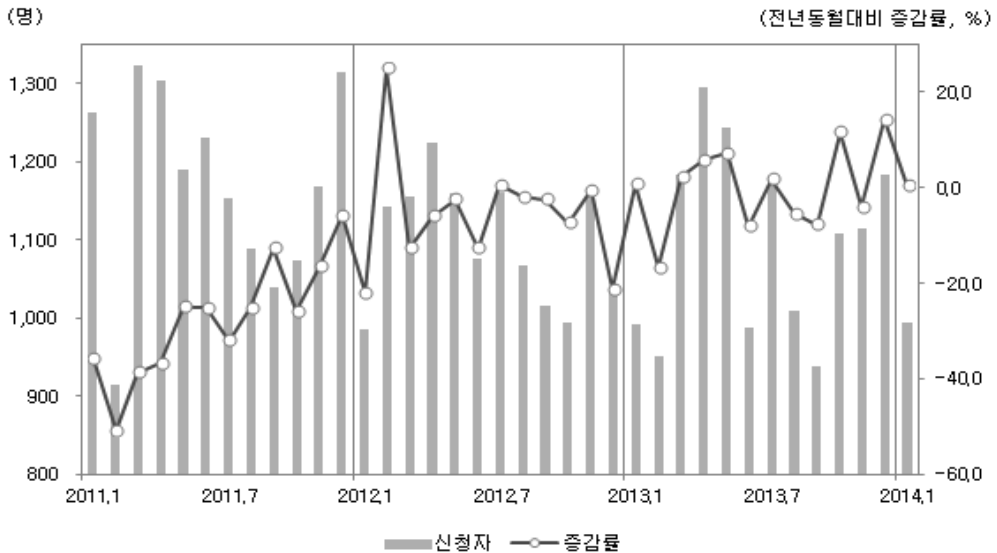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

- 개인파산 신청자(995명)은 전월대비 15.9% 감소, 전년동월대비 0.3% 증가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(4.9%)은 전년동월대비 60.0%p 증가, 면책 기각률(4.0%)은 전년동월대비 2.5%p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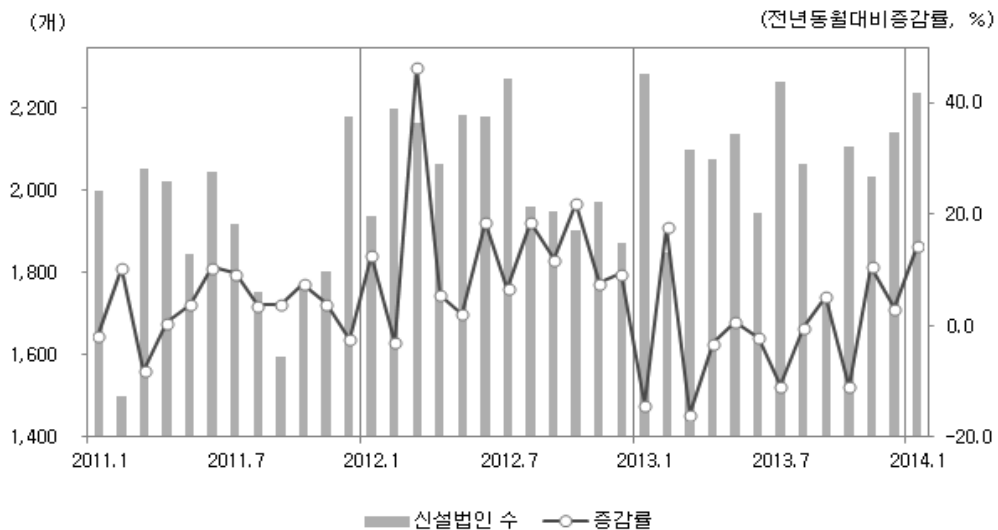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| 신·설·및·부·도·법·인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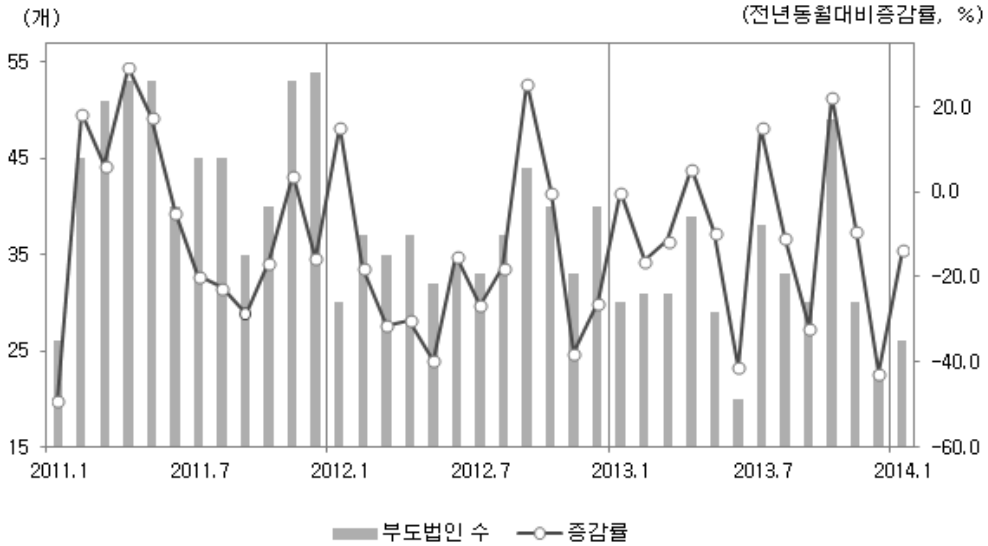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월 신설법인 수는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238개로 전월대비 4.5%(96개) 증가, 전년동월대비 2.0%(45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53.6%(52개)증가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각각 7.1%(22개), 1.0%(18개) 증가

- 서울의 1월 부도업체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6개로 전월대비 13.0%(3개) 증가, 전년동월대비 13.3%(4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각각 85.7%(6개), 40.0%(2개) 증가, 제조업은 전월대비 45.5%(5개)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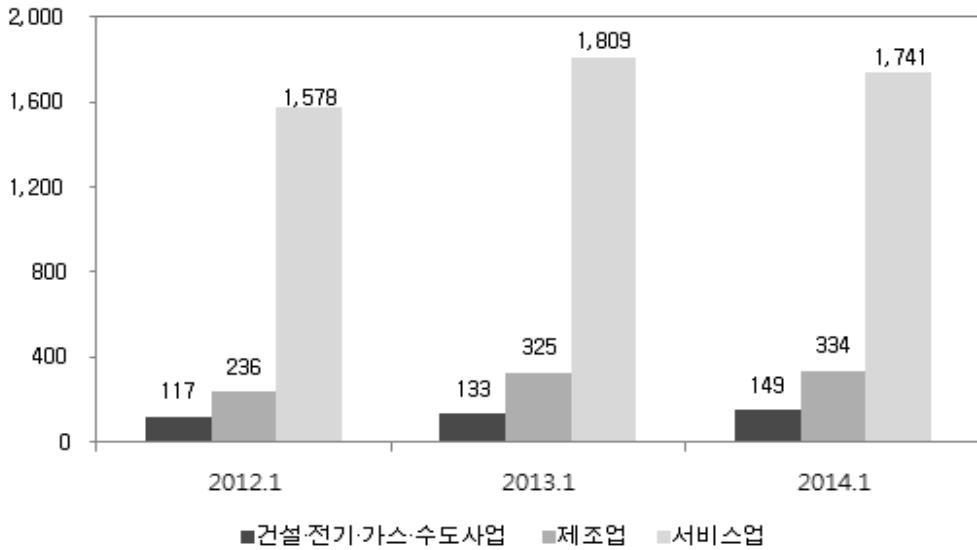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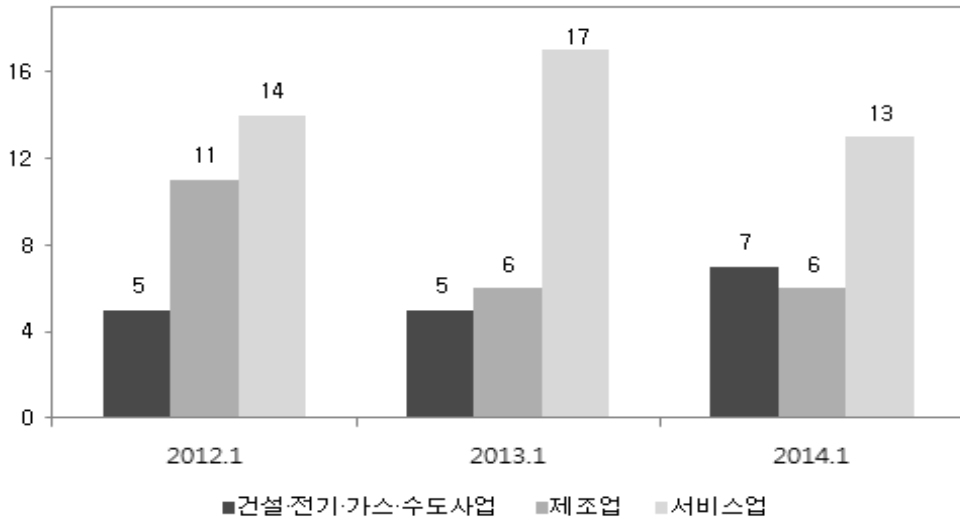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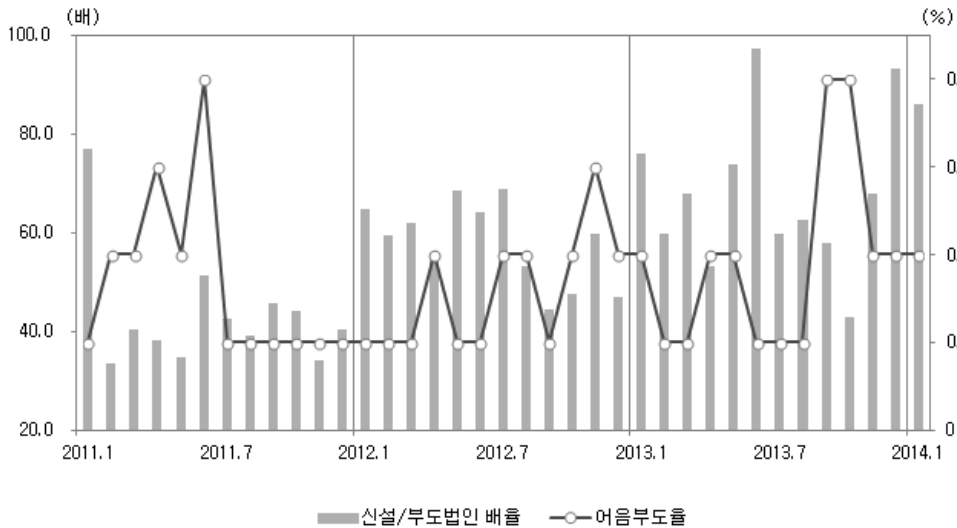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■ 1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

-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2%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86.1배로 전월 (93.1배)대비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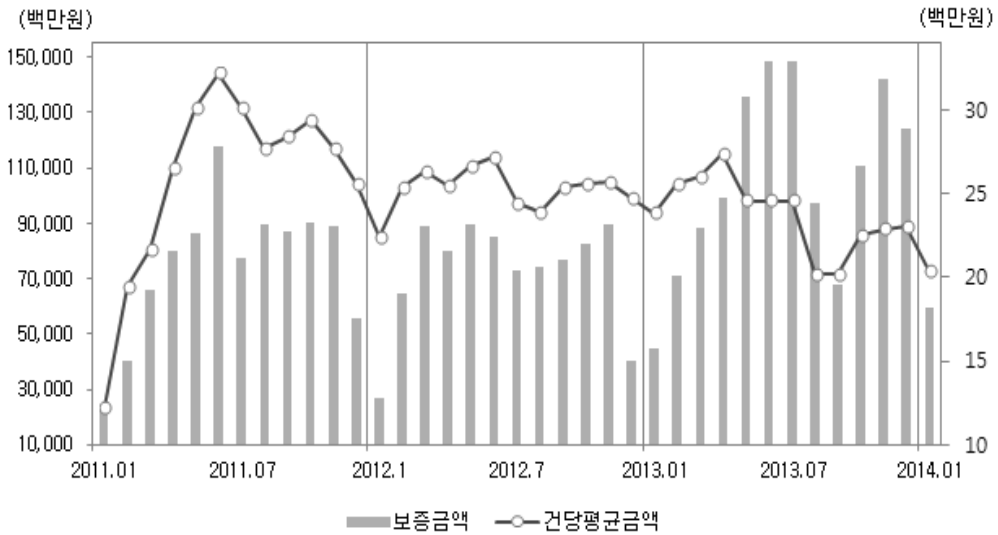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 · 용 · 보 · 증 |

■ 서울의 1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59,679백만원, 2,930건
 -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51.9%, 45.4% 감소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1.7% 감소
-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34.0%, 56.9% 증가하였고,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4.5%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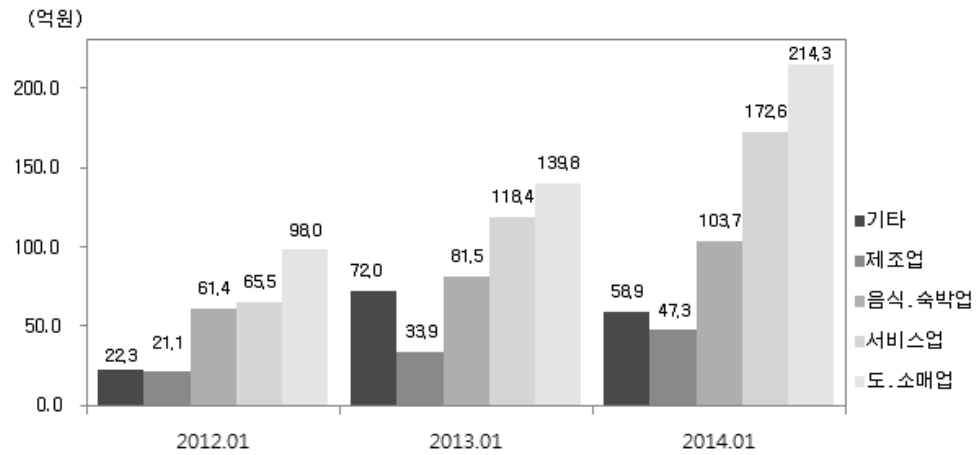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■ 서울의 1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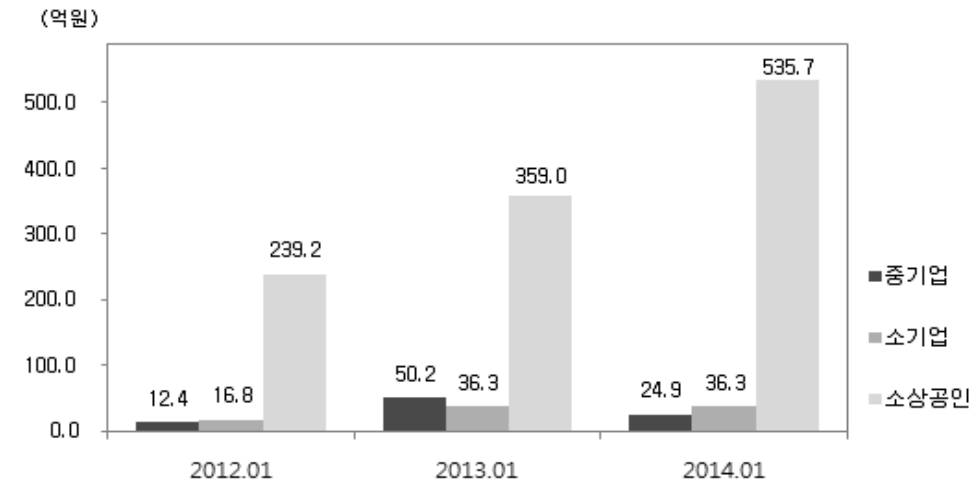
- 1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7.9%로 전월(9.7%) 대비 1.8%p 감소한 반면, 도·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5.9%로 전월(40.5%) 대비 4.6%p 감소
-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.0%로 전월(7.1%)대비 0.1%p 감소하였으며, 도·소매업종은 34.1%로 전월(37.6%)대비 3.5%p 감소

■ 서울의 1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,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.8%로 전월대비 4.4%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4.4%로 전월대비 1.8%p 감소
-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.1%로 전월대비 3.1%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.6%로 전월대비 0.9%p 감소
-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.2%로 전월대비 1.3%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2.6%로 전월대비 0.4%p 증가

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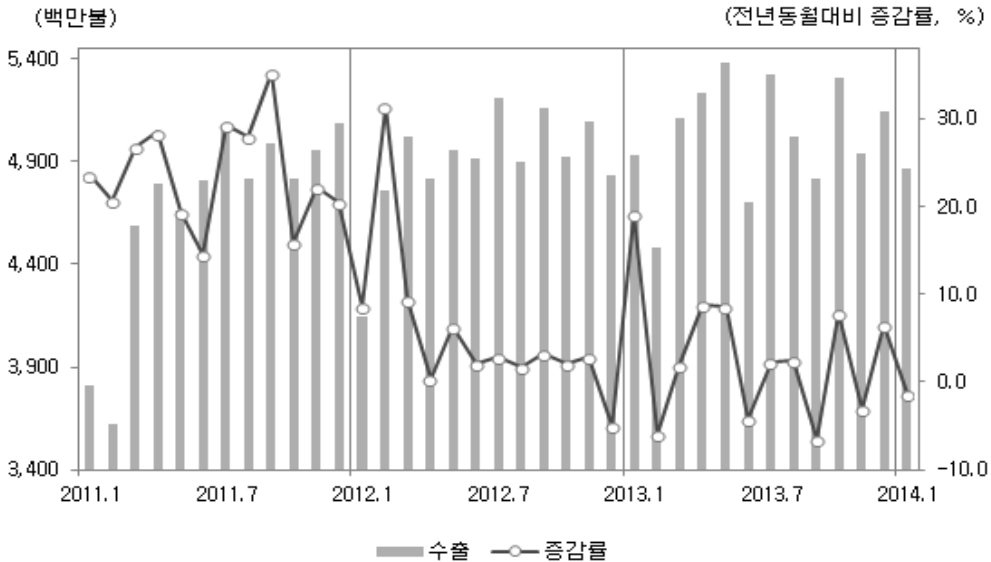
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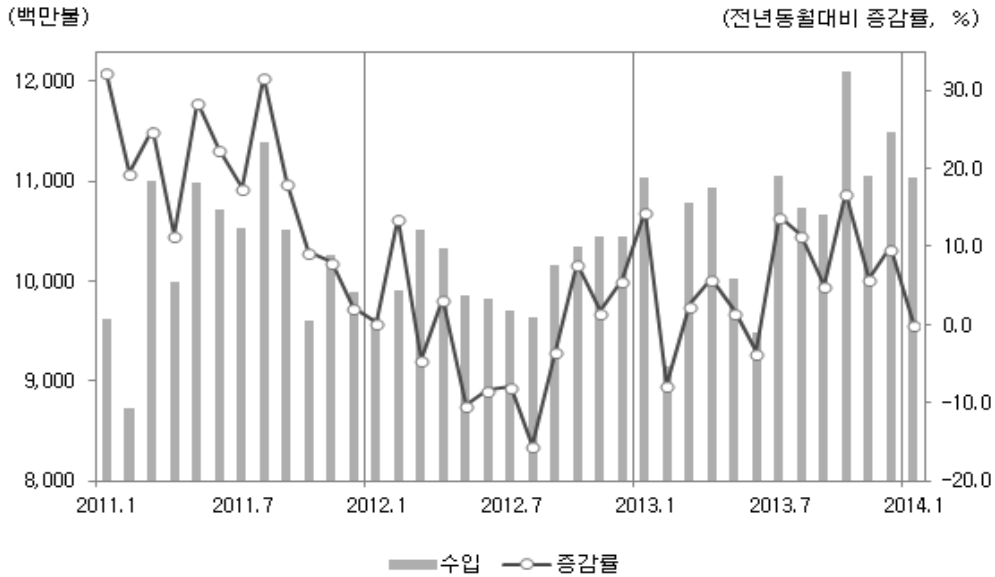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1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,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수출은 48.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4% 감소하였고 수입은 110.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1% 증가
 - 전국의 수출은 456.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2% 감소하였고 수입은 448.2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0% 감소

- 서울의 1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 부품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 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자동차 부품이 510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합성수지, 반도체, 편직물 등 순
 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1,251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, 의류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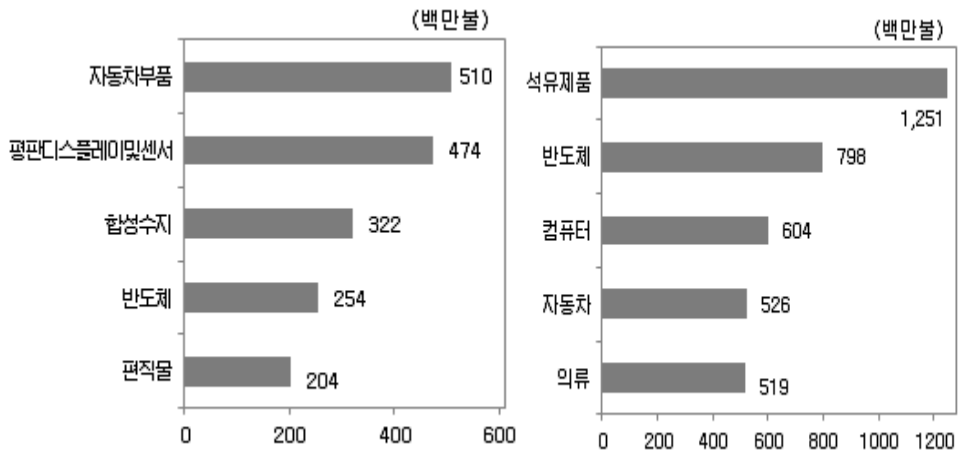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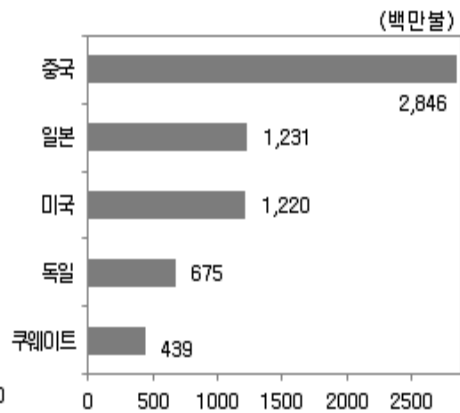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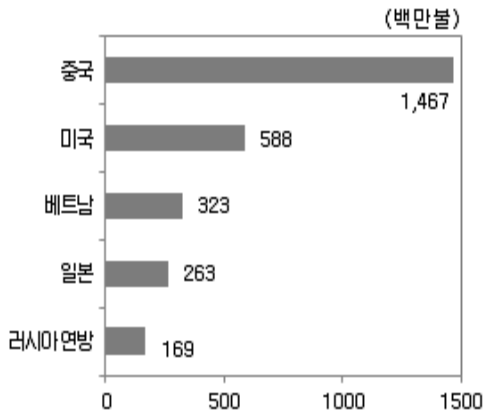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<그림> 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1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.7% 증가한 1,467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일본, 러시아 연방 순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4.8% 증가한 2,84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쿠웨이트 연합 순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〈그림〉 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